사무라이, 배신의 계절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제327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2029.76 (+1.77)

코스닥 741.26 (+11.23)

금리(국고채 3년) 1.77 (+0.01)

환율(원·달러) 1173.60 (+9.60)

신동빈 'L투자'도 장악

7월31일, 12개 'L투자회사' 모두에 대표이사로 등기
7월28일 '신격호 퇴출 조치' 이후 츠쿠다와 합작한 듯
"기존 대표이사 신격호 동의 없었다면 분쟁 더 커질 것"

신동빈(60·사진) 롯데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본 소재 12개 'L투자회사' 의 대표이사로 일제히 취임하는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지배하면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최근 신동빈 회장측이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L투자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철회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이 취임 등기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법무성에서 발급받은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신동빈(일본명 重光 昭夫·시게미츠 아키오) 회장이 지난 7월31일 자로 12개 L투자회사 모두에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지난달 30일 까지 12개의 L투자회사 중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는 신격호(일본명 重光 武雄 ·시게미츠 타케오) 총괄회장이, 나머지 3곳(L3, L4, L5)의 대표이사는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맡고 있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츠쿠다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3곳(L4·5·6)에서는 이사직에서도 퇴출됐다.

등기부 상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일은 6월 30일로 소급 기재됐다.

즉,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7월16일 전에 이미 L투자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취득한 셈이다.

신 회장은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퇴출시켰다. 이 후에도 신 회장은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체류했는데, 이 기간 동안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것이다.

이로써 외관상 12개 L투자회사의 지배권자는 신 회장으로 바뀌었다.

신 총괄회장이 "차남이 나에게서 롯데를 탈취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가 됐다고 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탈취'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신동빈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31일 이전 등기부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L투자회사 12곳 모두에 이사로, 이 중 9곳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사장은 3곳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였다. 신동빈 회장은 L10·12 두 곳에서 이사직만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냐는 점이다. 회사 정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본도 한국과 같이 주로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신동빈 회장은 L투자회사 변경등기는 7월 31일 했지만, 대표이사 취임일은 6월30일로 소급했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6월30일 이전에 신동빈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7월31일 이전에 이를 취소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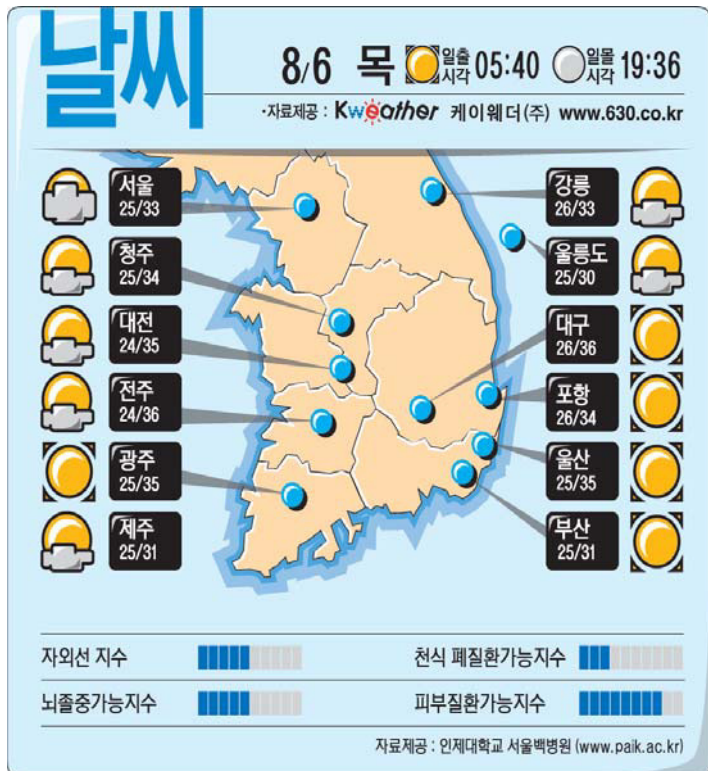
또 다른 관계자는 "변경 등기일이 형제의 난 이후 인 점을 보면 신격호 회장이 등기 실행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츠쿠다 사장과 합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츠쿠다 사장은 지난 4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신동빈의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 3일 입국 후 계열사 현장 등을 돌며 자신감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롯데그룹 총수임을 과시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東京都渋谷区初台二丁目２５番３１号 代表取締役　重　光　武　雄	平成２６年　６月３０日重任 平成２６年　８月１２日登記
東京都渋谷区代々木五丁目１９番２１号 代表取締役　重　光　昭　夫	平成２７年　６月３０日就任 平成２７年　７月３１日登記

5일 일본 법무성에서 발급받은 L제1투자회사의 등기부 등본 일부. 일본이름이 重光 昭夫(시게미츠 아키오) 인 신동빈 회장이 7월31일 변경등기를 통해 6월30일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기재돼 있다.

경제·산업

▲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해 미국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708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9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 **STX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매각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7월 유찰된 극동건설을 비롯해 다음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인 동부건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현 시점이 **화학주**를 가장 싸게 살 때라며 증권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 효과 등 긍정적 요인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을 맞아 증시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제5조 1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오는 14일 증권과 파생, 일반상품 시장이 일제히 휴장한다고 5일 밝혔다.

▲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TV 생산 업체들도 **OLED TV**를 공개하며 시장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완성차 154만8741대를 판매했지만 전년 동기 판매량과 비교해 4.9%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기아자동차 사장 시절 개발해 '정의선차'로 불리는 모하비가 내년 초까지 생산이 중단되며 현대차의 베라크루즈는 단종될 예정이다.

▲ **LG디스플레이**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첨단 멀티미디어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컴퓨터실 'IT발전소' 35호점을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6일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롯데그룹 내 분쟁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교육부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처음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나 개인용컴퓨터(PC)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 126만 270원이다.

▲ 종교시설 안이라도 예배와 같이 직접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리 밑에서 즐기는 피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지역 낮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된 5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가 '집안싸움'으로 오는 12월 특허(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월드타워점 재승인이 불투명해졌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 데다 '롯데=일본기업'이라는 국민적 '반 롯데'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면세점 특허 사업자 재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대기업들이 **한식뷔페**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기업 한식 뷔페 사업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국제

▲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연령대별로 가격표까지 매겨 야동들을 성노예로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4일 오후 11시 30분께(현지시간) 열차 2대가 잇달아 탈선하면서 최소한 32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했다.

▲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Soudelor)가 사이판을 강타한 뒤 대만과 중국 남부로 북진하면서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일본 정부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등의 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동맹관계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 **이란**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놓고 이란 정부와 군부·의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日 덕에 韓 발전… 신사참배 지적 내정간섭"

朴대통령 동생 근령씨, 日포털과 대담 파문

한국은 좌경화 발언부터 천황폐하 존칭 등 '물의'

일본 포털 니코니코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근령씨(오른쪽) /니코니코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가 지난달 일본 방문 중 일본 포털인 니코니코와 한 특별대담이 지난 4일밤 공개됐다.

박씨는 '천황폐하', '황후폐하' 등의 극존칭을 써가며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분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특히 박씨는 박 대통령이 지위상 할 수 없는 말을 자신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자신이 일본에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 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주장은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펼친 주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은 박씨의 발언 중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일본 덕에 경제발전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무상·유상의 원조를 받아서 특히 포항제철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는데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그리고 다른 한 곳 등 세 회사에서 자본과 기술을 다 제공해 주셔서 만들게 됐다"며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서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의 기술과 원조를 받아서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정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 IT강국이라지만 일본 기술 석달만 없어도 어려워진다

박씨는 한일 관계 정상화 반대세력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IT기업들에 일본이 핵심기술을 3~4개월 정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 한센병 극복도 '황후폐하' 덕분이다

박씨는 과거 한국이 한센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환자들의 자활조차 어려웠다면서 "젊은 시절 (한일 협정 직후) 황후폐하가 가네야마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시를 하셔서 안성에 나자로병원과 연구소까지 지어주셔서 그 덕택으로 (한국이)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황후폐하께 대한민국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한류도 일본 덕이다

박씨는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해서도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일본에서부터 한류가 시작된 것도 요시모토흥업에 계신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붐을 일으켜 주신 공을 한국분들은 모른다"며 "드라마부터 K-POP까지 기반을 형성해 주신 분도 요시모토흥업이었다고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한일 관계 악화는 노무현과 종북세력 때문이다

박씨는 일본의 공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선친들에 대해서 그냥 친일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을 발표한다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갑자기 박근혜 당시 의원을 (공격했다)"며 "과거사를 정쟁에 이용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 친일·반민족행위라면서 아버지의 열매를 향유한다

박씨는 한일 협정 반대세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일 협정으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났는지 발전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며 "친일·반민족행위라며 반대했던 사람들도 경제발전의 열매를 같이 향유하고 있다. 그분들은 (아버지가 놓은) 고속도로도 안다니느냐"고 말했다.

◆ 한국은 공산화만 아니지 이미 좌경화됐다

박씨는 일본에 대해 강경한 국내 여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만 되지 않았지 이미 좌경화가 돼 있다"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건설적인 정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이념적으로도 (진영 간) 대북정책이 틀려서 (한일 관계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유권자 때문에 강경했다

박씨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일 강경외교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이라며 최근 대일 외교 기조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 아베 총리를 보면 아버지가 떠오른다

박씨는 아베 총리의 외교에 대해 "중국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시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셨다. 제가 볼 때 정말 잘 하시는 일이다"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났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둥 중국 주석을 만나러 가셨을 때 아버지는 뛸 듯이 정말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한다

박씨는 자신의 이날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가족의 비리를 단속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일본은 왜 갔는지 다 보고를 받으신다"며 "제가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제 활동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평민으로서 살아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가늠하고 (대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 과거사 자꾸 사과하라는 건 창피한 일이다

박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역대 총리와 천황폐하가 계속된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 위안부 문제 자꾸 일본 탓만 한다

박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가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살게 됐기 때문에 자꾸 이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한다"며 "한국에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 야스쿠니신사 참배 참견은 내정간섭이다

박씨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해 "설마하니 아베 총리께서 참배하시면서 또 다시 전쟁을 (꿈꾼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외교부가 참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 나는 친일하겠다

박씨는 "해방 전의 친일과 한일 협정 이후의 친일은 다르다"며 "우리는 친일·친미를 해야지 친북을 하는 것은 국가를 배반하는 이적행위다. 저는 친일·친미를 해서 조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진짜 김일성' 등 독립유공자 후손 11명 특별귀화

<김경천 장군>

12일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11명에게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경천 장군, 이위종 지사,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의 후손이다.

김 장군은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항일투쟁을 이끌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김 장군의 항일투쟁 경력과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준 열사와 함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 무효를 역설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 초대 법무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무료 변론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이 전 장관의 손자 이준(50·프랑스 국적)씨를 제외하고 이 지사의 외손녀인 류드밀라(79)씨, 김 장군의 손녀 엘레나(54)씨 등 10명은 원 국적이 러시아다.

이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오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홍원 기자 hong@

당정,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추진

오늘 '롯데 대책' 회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등 재벌일가 소수지분 기업지배 견제 장치도 논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6일 회의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재벌 그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회의에서는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현재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다.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 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회의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롯데의 집안 싸움으로 롯데의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순환출자 때문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번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며 "또한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주로 매출을 낸다면 지배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돈 앞에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가 그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공식 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기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손가락 경영도 근절돼야 한다"며 "세금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 여부를 분명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재승인 불투명

경영권 다툼에 사업차질 우려

롯데가 '집안싸움'으로 오는 12월 특허(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월드타워점 재승인이 불투명해졌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다 '롯데=일본기업'이라는 국민적 '반 롯데'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면세점 특허 사업자 재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특허 신청을 마감하고 11월 중 특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의원은 "롯데그룹를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인 광윤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일본 측 지분이 99%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롯데그룹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기업"이라며 "신씨 일가가 불과 2.4% 지분으로 롯데그룹 416개 계열사를 지배한 것은 순환출자 때문이며 정부 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재벌특혜 면세점사업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과 같은 유통재벌을 막기 위해서는 면세점사업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수익구조는 면세사업수입이 2014년 기준 3조9000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83.7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특허수수료의 경우 관련 매출대비 0.05%로 터무니없이 낮다"며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재벌특혜사업으로 국부유출은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보다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정치권 "롯데 해외법인도 손보자"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

롯데그룹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외법인도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일명 롯데 해외법인법)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시스

앞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해외법인에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할 경우 공정위는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그룹은 거미줄 방사형 상호출자로 국내 상호출자 459개 중 416개인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해외법인 상호출자도 함께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 전 9만8000여 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일본롯데, 3년 동안 한국법인서 배당금 1400억 챙겨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간 한국 법인으로부터 14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벌닷컴(대표 정선섭)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16곳이 지난 3년(2012~2014년)간 한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397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421억2200만원, 2013년 411억9200만원, 2014년 564억7400만원이다. 일본측 지분이 99.28%인 호텔롯데가 3년간 지급한 배당금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762억750만원에 달했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는 3년간 310억1900만원을 배당받아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홀딩스는 지분을 보유 중인 롯데케미칼(9.30%), 호텔롯데(19.07%), 부산롯데호텔(46.62%)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일본 롯데는 BNK금융지주(2.01%)와 부산은행(2.01%) 등으로부터 3년간 189억8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광윤사는 부산롯데호텔(6.83%), 호텔롯데(5.45%), 롯데캐피탈(1.92%), 부산은행(0.87%), BNK금융지주(0.87%) 등으로부터 132억84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일본 잡지 발행사인 패미리도 부산은행(1.18%)과 BNK금융지주(1.18%) 등을 통해 127억1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L투자회사'는 각각 25억5000만~120억원을 배당받아 총 638억6600만원을 가져갔다.

/박상길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사정당국 칼날 롯데로… 전방위적 압박

공정위, 계열사 소유실태 조사
정부, 지배구조 개선 협의나서
소상공인聯, 불매운동 전개도

정부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집안싸움이 재벌개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말 롯데그룹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롯데에 이달 21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하거나 허위내용이 있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는 순환출자 등 지분소유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롯데는 2013년과 2014년 순환출자 조사 당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 459개 중 9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68조 4호 규정에 의거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 방침을 시사했다.

신 총괄회장의 지배를 받는 구조임에도 국내계열사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대기업 집단지정에서 누락됐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L투자회사, 광윤사가 일본 계열사인 점을 감안해 일본당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에 대한 반(反)기업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 대한 불매운동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롯데카드 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운동과 함께 소상공인 업소에서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내 계열사 19개로 구성된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 지지 선언에 나섰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자질에 80여개 계열사와 10만명 직원들은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강석윤 롯데그룹노조협의회의장(롯데월드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롯데카드, 롯데마트, 롯데제과, 롯데리아 등 19개 계열사 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신격호 배신한 이인원·츠쿠다

경영권 분쟁서 신 회장쪽에 돌아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왼쪽),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연합뉴스

영원한 충신은 없는 것일까.

신격호(94) 의 사람으로 분류된 이인원(68)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72) 롯데홀딩스 사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배신하고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편에 섰다.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신 총괄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임원 해임 지시서에는 이 부회장과 츠쿠다 사장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의 배신은 그룹 정책본부장을 맡게 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전까지 신동빈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반대해 악연을 맺었지만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부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후 지지 세력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42년간 롯데에 재직하며 '리틀 신격호', '신격호의 입과 귀' 등으로 불렸다.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이후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42년간 롯데에 재직했다. 200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을 거쳐 2011년 전문경영인으로는 처음으로 롯데 부회장직까지 오르며 신 회장을 대신해 정책본부를 이끌어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신 회장의 과외선생으로 신씨 일가와 각별한 연을 맺어 왔다. 왕회장의 눈과 입의 역할을 하며 신 회장이 2011년 그룹 회장이 된 이후 계속된 젊은 롯데로의 '세대교체' 인사에서도 살아 남았다. 대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 롯데그룹내 경북·외대 출신들을 적극 밀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토모(住友)은행(현재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출신으로 오사카 로열호텔 경영에도 몸 담았던 츠쿠다 사장은 2009년 신 총괄회장의 눈에 띄어 롯데홀딩스 사장으로 스카우트됐다.

신 총괄회장은 츠쿠다 사장이 로열호텔 CEO 때 로열호텔 로비에 고급 테이크아웃 반찬 코너를 만들어 히트를 친 경영 수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츠쿠다 사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 방침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을 때도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츠쿠다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일 롯데 식품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신 회장을 앞에 두고 'One Lotte One Leader(하나의 롯데, 한 명의 리더)'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 회장 지지를 본격화했다.

신 총괄회장의 지난달 27일 일본행 직후인 28일엔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주재해 신 총괄회장 해임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해 7월까지 롯데리아·롯데리아 푸드서비스 등 두 회사에서만 대표였지만, 현재는 롯데서비스와 미도리상사 등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한때 '일본 롯데는 츠쿠다가 경영할 것'이라는 설이 돌기도 했다.

/박상길 기자

롯데그룹株 시총 승계전쟁에 1조 이상 ↓

롯데쇼핑 6.91%, 롯데제과 2.38%, 롯데칠성음료 2.83% 하락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 상장사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알려지며 롯데그룹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롯데쇼핑 주가는 전날보다 6.91% 떨어진 22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제과도 2.38% 하락한 188만7000원에 마감했다. 롯데칠성음료도 2.83% 하락한 205만7000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롯데푸드는 2.87% 하락한 84만6000원, 롯데관광개발은 4.16%하락한 1만73000원, 롯데하이마트는 1.55% 하락한 6만3500원이다.

롯데그룹은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13.46%), 롯데제과(5.34%), 롯데칠성(4.71%), 롯데푸드(1.96%), 롯데상사(8.4%), 롯데건설(0.5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13.45%), 롯데제과(3.92%), 롯데칠성(2.83%), 롯데푸드(1.96%), 롯데상사(8.03%), 롯데건설(0.37%) 등을 갖고 있다.

KB투자증권 양지혜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또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아 개편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된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롯데그룹 관련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조45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길 기자

롯데그룹 식품관련 주들이 하락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현아 브로커' 소환

로비 성사여부 집중 조사
12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실제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숫자와 구체적 직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 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서 대표 측이 먼저 염씨에게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가 뿌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 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성폭행' 논란 심학봉 재수사

피해여성 진술번복 배경 조사

검찰이 '성폭행 의혹'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의원(구미갑)에 대해 재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5일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심 의원과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을 소환 조사해 강압적인 성관계 여부와 여성의 진술번복 배경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사안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4일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심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자신의 신고 내용을 번복해 심 의원의 회유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홍원 기자

대관령은 가을이 '성큼' 5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가 대관령 추억 만들기의 하나로 125m에 이르는 관상용 호박 터널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소 측은 오는 14일까지 호박 터널과 함께 고산 희귀식물의 자생화 공원을 볼 수 있게 개방한다.호박 터널에서는 100여 종의 호박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피보다 돈… 상속다툼 4년새 2배

차남·딸 균분 요구 늘어
2011년부터 매년 20% ↑

상속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롯데가의 형제간 지분 다툼에서 보이는 살벌한 풍경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70여건이나 접수됐다. 2011년에 비하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법조계는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형제 중 장자를 존중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상속재산 균분을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사회 현실 탓에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아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혈연으로 묶인 가족끼리도 재산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걸 보면 세상이 더 각박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 法 "회사도 30% 책임"

평소 초과근무로 피로누적
통증 호소했지만 배려 없어
"유족에게 3600만원 지급"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30%의 책임에 대해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쯤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쯤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평상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A씨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게 한 것이고 피로누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망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과중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적극 알리는 등 건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한 정황이 있다"며 A씨의 과실을 70%로, 회사의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행자부, 부동산업체 개인정보 위반 집중 단속

내일까지 자율점검 시행 후
28일까지 온라인·현장점검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자율점검표와 점검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자율점검은 7일까지다.

자율점검이 끝난 후 행자부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업체에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업체도 함께 점검한다. /김서이 기자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화학株 싸게 사자” 증권가 잇단 러브콜

| 마켓인사이트 |

계절적 3분기 최대 성수기 국제유가 반등땐 주가 상승 LG화학·롯데케미칼 수혜

현 시점이 화학주를 가장 싸게 살 때라며 증권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8월 비수기 요인을 확대 해석해 화학주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 효과 등 긍정적 요인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정유·화학 91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화학업종 지수는 지난달 1일 5350을 기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4000대로 떨어졌다. 지난 3일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일 대비 3.31% 하락한 4969.46을 기록했다. 그러나 5일에는 롯데케미칼(4.73%)·한화케미칼(1.01%)·LG화학(3.14%) 등 대표 화학주들이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돌렸다.

LG화학 오창공장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에서 연구원들이 배터리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화학 제공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이 화학주를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비수기 요인 등으로 하락한 제품가는 이미 원료가가 충분히 낮아 유가 반등시 9월부터 성수기 진입에 따라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월말이나 국제유가가 반등할 때 화학주 역시 다시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향후 유가가 진정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LG화학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기업가치의 회복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기능성 화학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전지와 중대형 전지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LG화학의 모멘텀은 고흡수성수지(SAP) 9만톤 증설, 중대형 전지 1GW 증설 등이다.

롯데케미칼의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사업군 자체가 경쟁사들에 비해 석유화학 기초원료와 제품 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가 계절적 최대 성수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선 “현 주가가 지난 2007년 분할신설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저가 매력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곽 연구원은 “현재 영업환경은 원화 약세로 인해 이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지난해 말보다 하방이 튼튼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0.03) 보다 11.23포인트(1.54%) 오른 741.26으로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 美 금리인상 우려 강보합 마감

시장 관망심리 확산 코스닥, 740선 회복

코스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7포인트(0.09%) 오른 2029.76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틀째 강세를 보였으나,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 관망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데니스 록하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발언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78억원, 601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83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2.95%), 기계(2.78%), 의약품(2.16%), 비금속광물(2.02%), 음식료품(1.80%), 화학(1.65%)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섬유·의복(-2.55), 전기전자(-1.38%), 철강금속(-0.88%), 은행(-0.74%), 보험(-0.73%)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대비 1.95% 하락한 115만9000원에 마감했다. 제일모직(-1.75%), 삼성에스디에스(-4.92%), 삼성생명(-2.36%) 등도 하락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1.04%)와 기아차(0.94%), 아모레퍼시픽(0.25%) 등은 올랐다.

STX건설 매각설에 STX엔진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고 STX중공업(21.43%), STX(13.43%) 등도 급등했다.

코스닥도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23포인트(1.54%) 오른 741.26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04억원, 220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477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화장품주가 포함된 화학업종이 3.94% 올랐고, 제약업종도 3.40% 급등했다. /김민지 기자

“中 주가 결국 오를 것… 지금이 매수 타이밍”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中 투자논란 진화 간담회 서방언론 과잉비판 지적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이 “중국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며 “지금이 중국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국 증시 진단 및 전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변동성이 심해진 중국 증시 투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고 진화에 나섰다.

서 사장은 “중국 증시 급락 사태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 증시 붕괴는 펀더멘털(기초체력)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신용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중국 주식을 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이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국 증시 진단 및 전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제공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성장 국면이 마무리되던 2000년대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성장률이 안정화되면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3500~45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인 뒤 장기적으로는 61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6월 중순 5166.35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150% 폭등했다. 그러나 과열 논란과 함께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 31일 3663.73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연기금을 통한 주식 매수 ▲IPO 중단 및 공매도 금지 ▲증시안정기금 긴급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서방 언론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증시 개입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서 사장은 서방 언론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증시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개입은 일반적이며 아울러 25년 내외로 짧은 역사의 중국 주식시장을 300년이 넘는 선진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성장은 지수가 아닌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수가 정체해도 시가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개별 종목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주가지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종목 선정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연 5.3% 수익 ELS 등 9종 공모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5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B 1종과 ELS 8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1465호’는 3년 만기의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3%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원금 및 수익금(15.90%)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S&P5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ELS 11461호’는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

의 65%이상이면 0.44%(연 5.28%)의 월수익을 지급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S와 ELB 상품 등 총 9종을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상품들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상반기 호실적… 계좌이동제 등 대비 과제

취임 100일 맞은 김용환 NH농협지주회장

시너지 강화·현장 소통으로 경쟁력 강화
은퇴설계·복합점포·핀테크·해외진출 집중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 창출이야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 4월 취임식에서 나온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회장의 다리는 계열사 시너지 강화와 현장을 향해있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계열사 시너지 창출'과 '현장소통', '해외진출'에 방점을 둔 것이다.

◆ "계좌이동제·저성장 대비 과제"

100일간의 성적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올 상반기 4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은행 출범 등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수익구조 등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농협금융은 ▲글로벌, 핀테크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화 ▲시너지 수익기반 확대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효율적 기업문화 확산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하고 경영 선순환 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신사업 발굴과 육성 방안이다. 이를 통해 4대 금융지주로서 경쟁력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협금융은 은퇴설계와 복합점포, 핀테크, 해외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농협금융은 시니어 대표브랜드 'NH ALL100플랜'을 내놨다. 또 '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은퇴시장에 사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복합점포'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다. 고객은 은행과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도 한 자리에서 계약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 인적경쟁력 강화·조직개편 준비

현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농협은행 가락시장지점과 서울영업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농협손해보험 인천 총국 등 지역 영업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현장 간담회와 가감없는 소통을 통해 금융지주의 역할과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의미다. 각종 개선사항을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에 'CEO와의 대화방'도 개설했다. 그는 특히 실용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방문 시 의전과 보고를 최소화하고 회의도 1시간 내 토론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인적경쟁력 강화작업과 조직 개편도 준비중이다. 조직개편에는 은행의 IB나 PE 영역을 NH투자증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앞서 김 회장은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 그룹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첫걸음으로 김 회장은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 등과 면담했다. 그는 미얀마 진출과 경제·금융 등 범 농협 협력 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

이밖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농업금융 등 해외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수출입은행장시절부터 해외 기업을 지원하는 등 해외경험이 많고 인맥도 넓다"며 "전임인 임종룡 회장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융지주로서) 농협중앙회 계열이라는 점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신과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美 금리인상 기대… 원·달러 환율 1173.6원

장중 3년여 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1원 오른 달러당 1173.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175.1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75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 2012년 6월 8일 1175.5원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9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9월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했다. 연준의 보팅 멤버인 록하트 연방준비은행장은 중도파로 분류된다. 그는 "미국의 경기 여건이 9월 금리 인상을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의 주요 경제지표 역시 개선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지난 1일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주말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큰 폭의 포지션 조정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달러화의 추가적인 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원은 "호주중앙은행(RBA)의 금리 동결과 중국 증시 반등으로 아시아통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진데다 역외 시장 참가자들도 1170원대 초반 레벨에서는 롱플레이에 나서기보다는 차익실현에 보다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또한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9월 금리 인상 지지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됐지만 주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달러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제유가 반등과 중국증시 안정 조짐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도 개선돼 원화 추가 약세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백아란 기자

금감원, 카드사 불합리 영업관행 '수술'

민원분석 통해 드러난 문제점 8가지 개선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이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카드민원이 7132건으로 전체 비은행 민원 중 37%를 차지함에 따라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모든 과정에 걸쳐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그 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 의무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강화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 8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약 90조원이었던 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말 5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 자산규모는 20조원에서 85조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들의 '일단 팔고 보자' 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경영행태가 회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들이 카드 이용과 관련해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가 해소돼 카드업계와 금융산업 전반에 국민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신한은행 "우수고객 비대면 자산관리 지원"

'스마트WM센터' 오픈

신한은행은 5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우수고객을 위해 '스마트WM센터'를 열고 비대면 고객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WM센터'에는 각종 금융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영업점 우수고객 전담관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배치돼 개인별 전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세무와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1:1 맞춤형 자문서비스와 예·적금, 대출 등 각종 은행 업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한S뱅크의 '스마트케어 매니저' 메뉴를 통해 자산관리 분야의 이슈리포트와 직원 코멘트도 받을 수 있다. /백아란 기자

‘법정관리’ STX건설 매각작업 곧 돌입

극동·동부·금호산업 등 ‘매물’ 많아 난항 예상

STX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매각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7월 유찰된 극동건설을 비롯해 다음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인 동부건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는 7일까지 STX건설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이달 중으로 입찰제안사 중 주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STX 칸(KAN)’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지난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37위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어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은 다른 계열사가 STX건설의 기업어음(CP)을 사들이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결국 2013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관리 6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또 세 차례의 감자와 두차례의 출자전환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882억원, 영업손실은 12억원이다.

그러나 투자은행(IB)과 건설업계에서는 STX건설의 M&A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초 쌍용·동양건설 등 굵직한 매각이 성공된 바 있지만 이후 극동건설 등 건설사 매각에 지지부진하기 때문.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1월 두바이 투자청(ICD)에 인수됐다. 이후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주택사업과 해외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EG건설에 매각된 동양건설산업도 최근 민자사업을 수주했다. 동양건설이 수주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으로, 전체 공사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 매각을 추진한 극동건설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지난달 8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입찰에 응한 3개 업체 모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 이후 신한은행은 현재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동부건설이 다음주 중 매각 공고를 내는 등 매각경쟁도 만만치 않다. 동부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부건설 매각주관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최종 발탁했다.

NH투자증권은 이어 삼정KPMG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인수자 모색과 내부 실사 등을 추진해 다음주 중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국내 주택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초까지 굵직한 건설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이후 관심이 높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금호산업 매각가격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는 M&A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기흥역 더샵’ 분양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기흥역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기흥역 더샵 투시도. /포스코건설

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7층 1개동 전용면적 59㎡ 총 175실 규모다.

내부는 방 2개, 거실, 욕실 2개, 주방·식당 등 구조로 설계됐다. 안방과 거실 폭도 3m가 넘어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A타입은 안방+거실+자녀방 등 3-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성을 높였고, B타입은 2면 개방형 구조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인근에는 6400여㎡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조성 예정이다.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활용하면 수서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신갈초, 성지초·중, 기흥중, 신갈중, 신갈고, 기흥고 등 10여개에 이르는 교육시설이 반경 1km 이내에 있다.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2018년 3월)가 신설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 초반(2억원대 초반)로 책정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3년간 용인시에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가구는 600가구도 안될 정도로 부족해 소형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입지나 상품,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현장 홍보관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25번지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분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SK건설 ‘대연 SK뷰 힐스’ 전 평형 청약 마감

평균 경쟁률 272대1 기록

SK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분양 중인 ‘대연 SK뷰 힐스(VIEW Hills)’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접수가 모두 마감됐다고 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접수 결과 전용면적 18㎡~29㎡ 4개 주택형, 107가구 모집에 총 2만9113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2대 1이다.

앞서 이 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발표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용면적 59㎡~111㎡ 7개 주택형, 아파트 481가구 모집에 총 14만4458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렸다.

대연7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SK뷰 힐스는 지하4층~지상26층,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12개동 총 1174가구 규모다.

SK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분양중인 ‘대연 SK뷰 힐스(VIEW Hills)’ 도시형생활주택이 평균 27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의 청약접수가 마감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견본주택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SK건설 제공

추후 분양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6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7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10일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가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이 3.3㎡당 평균 각각 1085만원대, 812만원대다.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상반기 대형아파트 1만1318가구… 2010년 이후 최저

올 상반기 분양 아파트 중 대형 면적 물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아파트 중 전용 90㎡이상 대형 아파트는 1만1318가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비해 각각 10.5%, 44.7% 감소한 수치다.

대형 아파트 감소와 함께 면적 대비 저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99㎡는 3억4700만원으로, 전용 74㎡(3억 140만원)보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70만원 이상 저렴했다.

이 때문에 대형 아파트 경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전용 93㎡는 49가구 모집에 2992명이 몰려 61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반면, 전용 84㎡는 40가구 공급에 625명이 접수해 15대 1로 1순위 마감해 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더 높았다.

하반기에도 희소성이 높은 대형아파트가 곳곳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하는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을 9월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서원초, 원명초, 반포고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전용 59~133㎡의 751가구 중 203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이중 전용 133㎡ 14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8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고덕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숲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지상 25층 13개동 전용 59~108㎡ 총 687가구(일반 250가구)며, 전용 108㎡는 42가구다.

북측과 남측으로 64만9709㎡ 규모의 명일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도보 10분 거리로 강남권 출퇴근이 수월하다. 올림픽대로 암사IC와 암사대교, 서울외곽고속도로 상일IC 등의 이용도 쉽다.

이밖에 대림산업은 이달 서울 성동구 금호 15구역에 ‘e편한세상 센텀포레’(116~124㎡ 48가구)를, GS건설은 광교신도시에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전용 107~115㎡ 147가구)를 공급한다.

/김형석 기자

현대건설

싱가포르 매립공사 수주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가 발주한 테콩 섬의 매립공사 2단계 사업을 4억3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발주처로부터 낙찰통지서(LOA)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공사는 테콩 섬 서부지역의 부지를 매립하고 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다. 착공은 다음달 25일이며, 준공은 2023년 3월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 품질컨설팅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과 공공건축물의 신·증축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시험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 현장은 위례신도시 주택건설공사, 동탄2신도시 택지 조성공사,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고덕택지 부지조성공사, 포천병원 의료시설 증축공사 등 23곳이다.

LG 주도 OLED TV 시장, 일본도 본격 가세

LG디스플레이 간담회장에 설치된 월 페이퍼를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파나소닉, 내달 독일 IFA서 첫 번째 제품 공개
소니도 출시 검토 중… 삼성은 여전히 보수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LG전자와 중국 업체에 이어 일본 TV 제조사까지 OLED TV 출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파나소닉은 다음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회사의 첫 번째 OLED TV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파나소닉의 OLED TV는 초고선명(UHD) 커브드 65인치 모델로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LED TV는 뛰어난 화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액정표시장치(LCD) TV에 비해 높은 가격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는 LG전자와 중국의 스카이워스·창홍·콩가 등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세트제조사들은 LG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아 TV를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 OLED TV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본 업체들이 가세할 경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OLED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판을 키우기 위해 여러 업체의 가세를 바라는 상황이다.

일본의 소니도 OLED TV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니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벽지처럼 벽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TV 제조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글로벌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는 여전히 OLED TV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RGB 방식으로 소형 OLED 패널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로는 대면적 TV 패널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당장 OLED TV를 대량 생산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에나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OLED TV 시장 규모는 올해 약 40만대에서 2019년 700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아가사랑 세탁기' 60만대 판매 돌파

국내 첫 '세컨드 세탁기' 삶는 세탁방식 인기 비결

삼성전자는 자사 소형 전문 세탁기 '아가사랑 세탁기'가 13년간 국내 판매량 60만대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아가사랑 세탁기'는 2002년 국내 유일의 삶음 기능이 있는 3kg 소형 전자동 세탁기로 첫 출시하며 '세컨드 세탁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여러 빨래를 함께 세탁하던 기존 세탁기와 달리 아기 옷 등을 위생적으로 자주 편하게 세탁할 수 있어 출시때부터 인기를 끌었다.

2013년 출시된 '아가사랑 플러스'는 삶음 전문 세탁 코스를 더욱 세분화하고 부가기능을 강화해 세컨드 세탁기 원조의 명성을 이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이 제품은 출산 선물로 인기를 끌었고, 수건·양말·속옷 등 자주 세탁이 필요한 소량 빨래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가사랑 세탁기'의 삶아서 세탁하는 방식은 각종 세균·악취를 없애 주는 살균효과와 표백 효과가 있어 유아의 옷이나 침구류 세탁에 자주 사용됐다.

뜨거운 물에 푹 담가 90℃이상의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아가사랑 세탁기'의 '푹푹삶음' 코스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을 통해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을 99%이상 제거한다는 인증을 받아 살균마크(S마크)를 획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박병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아가사랑 세탁기'가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세컨드 세탁기에 대한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를 배려한 특화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한화, 6·25 참전 국가유공자 집수리 봉사 ㈜한화는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경근)과 함께 진행한 '나라사랑 클린하우스 시즌2'의 1호 주택(서울 용산) 준공식을 5일 실시했다. 나라사랑 클린하우스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화 직원들이 국가유공자 어르신의 집을 찾아 수리하고 있다.

LGD, 소외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앞장

'IT발전소' 35호점 개소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한상범)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컴퓨터실 'IT발전소' 35호점을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측은 이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명진들꽃마을에 'IT발전소'를 개소했다.

명진들꽃마을은 영유아를 비롯해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IT발전소' 35호점에는 23인치 와이드 LCD 모니터를 장착한 PC 17대, 최신 55인치 풀HD LCD TV와 프린터 등 주변기기를 갖추고 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IT 교육 지원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경북 김천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IT발전소' 1호점을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 33곳, 폴란드 1곳 등 총 35개 점을 개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내로 경북, 경남, 전남 등지에 추가로 'IT발전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전무)은 "잠재력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IT발전소'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폴더형 스마트폰 'LG젠틀' 글로벌 공략

GfK, 유럽시장의 약 20%가 폴더형 제품

LG전자는 지난달 말 국내에 출시된 폴더형 스마트폰 'LG 젠틀'(사진)을 유럽,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휴대폰 시장에서 폴더 형태 제품은 약 20%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LG전자는 이 시장을 포함한 잠재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LG 젠틀'로 '폴더형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LG 젠틀'은 기존 국내 출시버전 사양과 동일하다. 특히 해외 현지 사업자들로부터 'Q 버튼' 기능과 '가로3줄-세로3줄' 화면 인터페이스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Q 버튼'은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해 두고 한번만 누르면 해당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 '가로3줄-세로3줄' 인터페이스는 앱 아이콘을 큰 사이즈로 배열해 시원한 시아각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작년 9월 '와인스마트'를 국내와 대만에, 올해 1월 '아이스크림스마트'를 국내에 출시한 바 있다. 이번 'LG 젠틀' 출시로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형 스마트폰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이번 출시는 해외 주요사업자들이 폴더형 스마트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차별화된 제품 세그먼트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속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SK, 2년간 4000명 인턴십… 청년 고용 앞장

협력사와 고용 디딤돌 MOU 우수 中企 - 인재 '오작교' 내년부터 2만명 창업교육도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해 미국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5일 서울 서린동 SK서린사옥에서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MOU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SK그룹은 협력업체와 함께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SK그룹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청년 인재를 선발·육성하는데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엔 실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SK그룹은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채용난에 시달리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최적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2016년부터 매년 취업을 원하는 청년 20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인턴십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들은 SK그룹이 시행하는 2~3개월의 직무교육과 채용기업에서 진행하는 3~4개월의 인터십을 거치게 된다.

SK그룹은 이 기간에 급여(월 150만원)와 교육비를 모두 부담한다.

SK그룹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의 인식 전환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인재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5일 SK서린사옥에서 열린 SK 고용 디딤돌 MOU 협약식에서 임종태(앞줄 왼쪽 두 번째) 대전창조경제센터 센터장과 김창근(앞줄 왼쪽 네 번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 내용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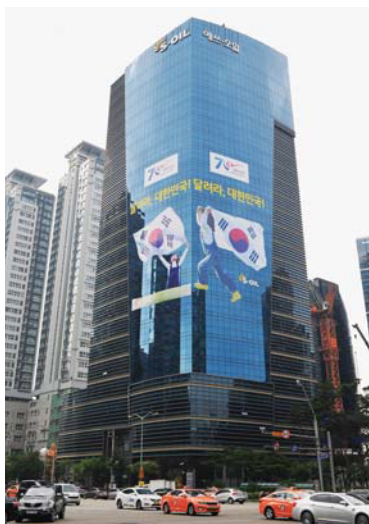
S-OIL 마포사옥 태극기 입는다

S-OIL은 5일 서울 마포사옥에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대형 태극기를 내걸었다.

건물 10층 높이에 달하는 세로 33m, 가로 18m 크기다.

"날아라 대한민국, 달려라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이달 말까지 걸릴 예정이다.

아울러 S-OIL은 정부의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특허 연장·공급 계약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샌디스크와 양사간 협력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과 D램 공급 계약이 포함된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기존 계약기간 등을 연장해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다.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샌디스크는 동사의 MCP와 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한편 양사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샌디스크에 의해 제기된 영업비밀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반격 준비한다

1% 실질주주증명서 발급 등 경영간섭 가능성 여전히 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이 주식매수청구권 이슈를 넘겨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법적 공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엇은 주총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주소송·합병무효소송과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 유효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삼성물산 지분 1%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실질주주증명서는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로 발생 회사에 주주의 개별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쓰인다.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르면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29조는 주주가 소를 통해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총 후 조용한 행보를 보인 엘리엇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 받으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총 당일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은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과 관련해 질문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 회장의 의결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됐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회장의 의결권 유효성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 회장의 의결권 위임은 적법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 결과와 전체 주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우선주 주주를 모아 주총 합병 결의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현재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비용 마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를 통한 일반주주들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는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5일 삼성물산의 종가는 5만7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외국인 주주들의 매도와 지난달 17일 합병 주총에서 엘리엇이 세력 규합에 실패했던 점을 미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조5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낮게 점지고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아시아나 소속 스타얼라이언스 '최고 항공동맹체'

호주 여행잡지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는 5일 온라인 여행잡지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로부터 '최고 항공동맹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는 올해부터 여행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공항 라운지, 상용프로그램, 기내식, 와인 등 33개 분야에 걸쳐 우수 항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데이비드 플린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 편집국장은 "28개 회원사를 보유한 스타얼라이언스는 출장 승객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든 연결편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자들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통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 확장,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회원사 전용 터미널 확보와 더불어 회원사 항공편 탑승 시 편리하게 보안 검색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골드 트랙 서비스 시행 등 스타얼라이언스가 출장 승객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기자 yonggi@

재규어랜드로버

세일즈 총괄이사에 한재흥 중장기 성장 중추역할 기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세일즈 총괄이사에 한재흥씨(45·사진)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이사는 삼일 회계법인, BAT 코리아 근무 후 2004년 BMW 그룹 코리아에 입사했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한 이사 영입을 통해 중장기성장 계획에 따른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해외 고전 기아차, 작년 실적 추월은 '먼길'

해외실적 하락세 지속… 내수도 K5 등 판매부진
전년대비 10% 감소… 하이브리드카 30% 대 급감

기아자동차가 해외 시장에서 좀처럼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수에서는 주력 모델인 K5와 K7의 판매실적 감소가 눈에 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아차는 올해 들어 7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176만329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판매량 180만9810대와 비교해 2.6%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내수는 29만784대를 판매해 지난해 26만1069대보다 11.4% 증가했다.

반면 해외는 154만8741대에서 147만2512대로 4.9% 감소했다.

지난달 해외판매는 18만6325대로 지난해 7월 22만212대보다 15.4% 급감했다.

이에 전년 동월 대비 총 판매량 10.7% 감소를 초래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매출 23조6187억원, 영업이익 1조1623억원, 당기순이익 1조6497억원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동기 영업실적과 비교해 각각 매출은 1.5%, 영업이익 22.8%, 당기순이익은 13.2%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기아차의 저조한 성적은 주력 모델을 비롯한 승용 부문의 판매 부진에서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기아차는 올 1~7월 내수에서 경차인 모닝과 레이부터 플래그십 세단인 K9까지 승용 전 차종이 지난해보다 덜 팔렸다.

올해 누계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모닝 4만9987대(-7.0%, 이하 전년 동기대비 감소치) ▲레이 1만5450대(-20.3%) ▲프라이드 4288대(-26.4%) ▲K3 2만4987대(-8.5%) ▲K5 2만6550대(-10.2%) ▲K7 1만1376대(-12.7%) ▲K9 2700대(-10.0%) 등이다.

기아차 신형 K5. /기아자동차 제공

승용 부문 총 판매는 13만5338대로 지난해 15만1878대보다 10.9%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기아차의 주력 모델인 K시리즈의 두 자리수대 실적 하락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중순 '2개의 얼굴, 5가지 심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형 K5를 출시한 바 있다.

신형 K5 개발에는 45개월 동안 4900억원을 투입했다.

사측은 우수한 성능과 연비 경쟁력을 갖춘 2030 고객 맞춤형 모델로, 취향에 따라 디자인과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중형차라고 소개했다.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K5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2.4%, 전월 대비 68.6% 늘어난 6447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까지 3만대 가까이 팔렸던 지난해 실적을 만회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5의 하이브리드카 판매 역시 올 7월 누계 1914대로 3066대가 팔린 지난해보다 37.6%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K7 하이브리드카는 1667대가 팔려 전년 동기(2443대) 대비 31.8% 감소한 실적을 냈다.

이 기간 SUV·RV(스포츠유틸리티차량·레저차량) 부문에서는 11만7537대를 팔아 전년 동기 7만3199대보다 60.6% 늘어난 판매 호조를 보였다.

기아차 측은 "신형 K5와 쏘렌토, 카니발 3각 편대가 실적을 견인하며 2000년 현대차그룹 출범 이래 사상 최다 국내판매를 기록했지만, 내수 판매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 공급이 감소하며 해외 판매가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신형 스포티지를 투입하는 한편 신형 K5 판촉과 마케팅에 힘을 기울여 글로벌 판매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벤츠 "하반기는 SUV에 주력"

부산 팝업스토어 오픈… 방문객 참여이벤트도
최덕준 벤츠 부사장 "올 판매 4만대 넘어설 것"

"올 상반기 2만2000여대를 판매한 데 이어 하반기 여세를 몰아 연간 4만대 판매를 넘어설 것이다."

최덕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세일즈 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Mercedes me Busan(메르세데스 미 부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벤츠는 '더 뉴 C클래스 이스테이트'를 프리뷰로 선보였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출시한 뉴 C클래스의 평이 좋아 이스테이트 모델을 선보이기로 결정했다"며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더 뉴 C클래스 이스테이트의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이스테이트의 타 모델 출시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벤츠의 미드사이즈 왜건형 모델인 더 뉴 C클래스 이스테이트는 트렁크 용량 490ℓ로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510ℓ까지 활용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220d 모델이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2.2ℓ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70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더 뉴 C클래스 이스테이트는 올해 하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미정이다.

또 최 부사장은 하반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4분기에 GLK가 GLC로 이름을 바꿔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벤츠는 국내시장에서 SUV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4가지 SUV 모델도 부분변경해 선보일 방침이다.

/부산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차, 쏘나타 PHEV 1호차 전달

환경산업기술원 최성만씨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호차를 환경부 산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최성만씨에게 5일 전달했다.

현대차는 이날 서울시 영동대로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곽진 현대차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쏘나타 PHEV 1호차 전달식을 가졌다. 최씨는 "환경기술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PHEV에 관심이 생겼다"며 "쏘나타의 최신 친환경 기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쏘나타 PHEV의 1호차 주인공 최성만 씨(오른쪽)와 곽진 현대차 부사장이 차량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측은 "쏘나타 PHEV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호차 전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쏘나타 PHEV는 고효율의 독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1회 충전 시 전기자동차 모드 주행만으로 약 44km를 주행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SK C&C '제2회 비즈 아이디어 페스티벌' 시상

SK주식회사 C&C는 5일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제2회 비즈 아이디어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협력사와의 협업체계 구축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취지로 마련됐다.

시상식은 사전 서면 평가와 제안발표 평가를 거쳐 10개사 중 총 5개사가 대상(1곳), 최우수상(2곳), 우수상(2곳)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수상 업체들은 사업화와 개발 지원금으로 대상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받았다.

대상은 판게아솔루션사가 제안한 '중장거리 LoRa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장거리 LoRa(Long Range Sub-GHz Module,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통신 기술의 일종) 무선망 기술 기반 저전력 스마트 IoT 디바이스·응용 솔루션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한샘의 차세대 전략은 디지털·생활용품”

국내 최대 인테리어 매장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개장
강승수 사장 “생활용품 매출 비중 30~40%까지 확대 예정”

“한샘의 차세대 전략은 ‘디지털’ ‘생활용품’입니다”

강승수 한샘 사장(사진)이 5일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샘의 차세대 전략을 ‘디지털’과 ‘생활용품’으로 소개했다.

강 사장은 “가구에 따른 전자제품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직접 연구개발 하지 않고 가정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용품 매출 비중을 15~20%에서 30~4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샘은 부엌가구, 거실·침실가구, 욕실, 생활용품 사업에 이어 지난해 말 기기사업부를 신설하고 LG전자와 공동으로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등 소형가전을 개발하고 있다.

또 2월 생활용품 전문 대형매장 ‘한샘홈’ 1호점을 서울 공릉동에 연 뒤 지방까지 대형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샘은 대구범어점을 시작으로 부산 위주의 유통망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넓히는 등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4500평 이상의 플래그숍을 전국에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홈인테리어 유통매장인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은 연면적 9200㎡(2800평)로 한샘이 운영하는 7개 플래그샵 중 최대 규모다.

윈스톱-체험형-프리미엄에 이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 ‘4세대 플래그숍’이다.

대구범어점은 가구관·생활용품관·키친&바스관·맞춤 패브릭관 등 토탈 홈 인테리어 전시장과 카페와 키즈룸·수유실 등 편의시설,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췄다. 기존 한샘 플래그샵이 한 건물에 5~8개층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한 개 층에 매장이 조성돼 고객의 쇼핑 편의를 극대화했다.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모델하우스. /한샘 제공

13개의 ‘라이프스타일 패키지’와 73개의 ‘콘셉트룸’이 구성된 가구관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키친&바스관’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빌트인 주방기기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다. ‘맞춤 패브릭관’은 330m²(100여평)로 국내 최대 규모다. 한샘은 1997년 방배 1호점을 시작으로 2000년 논현점, 2001년 분당점을 차례로 오픈했다. 2009년 잠실점과 2011년 부산센텀점, 2013년에는 목동점이 문을 열었다. 이번 대구범어점 오픈으로 전국에 7개 플래그샵을 운영중이다.

강 사장은 “대구범어점은 프리미엄하면서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4세대 플래그샵”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을 고급화하면서도 제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신고시 최대 1000만원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앞으로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허위·과대 광고의 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 규정도 포함했다. 위해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생산·판매 등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등이 행정당국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전 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땐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필리핀, 세부여행 특가 상품전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모두투어와 손잡고 ‘홈플러스 전용 여행 특가 상품-필리핀 세부’를 선보인다. 이번 특가 상품은 대한항공과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어부산의 항공권과 리조트를 결합한 에어텔 상품(3박5일)으로 인천출발 기준 모두투어의 동일 등급 상품 대비 10만원 저렴한 42만9000원부터(유류할증료 포함) 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제일모직 환산주가, 6개월 연속 1위

지난달 말, 837만5000원

제일모직(대표 김봉영 윤주화)이 6개월 연속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환산주가 1위를 차지했다. 환산주가는 종목마다 각기 다른 액면가를 같다고 놓았을 때 1주 당 가격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환산주가 상위 50위 기업을 살펴본 결과, 제일모직의 7월 말 환산주가는 837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밝혔다. 액면가 100원인 제일모직 주가를 액면가 5000원에 맞춰 환산하면 최고가 주식이된다는 뜻이다.

2~4위는 SK C&C(765만원), 네이버(523만원), 아모레퍼시픽(411만원)으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맛있는 제주만들기’ 10호점 돌파

호텔신라, 사회공헌활동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호텔신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가 10번째 결실을 맺었다.

호텔신라(대표이사 이부진)는 지난 6월 초 10호점으로 선정된 ‘천보식당’에 메뉴 개발·조리법 전수·서비스 교육·주방 설비 개선 등의 토탈 기부를 제공해 5일 재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보식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위치)은 영업주 강순옥(여·65)씨가 운영해온 59㎡(18평) 규모의 영세한 동네식당이다.

2012년부터 오리 요리와 국수 음식을 주 메뉴로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하루 평균 고객 10명에 매출은 15만원 정도로 영업이 저조했다.

호텔신라는 주변상권 조사와 식당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10호점만의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조리법을 전수하고, 주방 공간 확대와 노후화된 시설물 전면 교체 등 식당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김수정 기자

대기업 한식뷔페 확대, 제동 걸리나

'올반' 등 앞다퉈 매장 늘려 영세 지역 상권 피해 속출해 확장 억제 상생법 발의 추진

신세계푸드의 '올반',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의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형식의 매장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새롭게 부상한 한식뷔페는 저렴한 가격에 웰빙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들이 앞 다퉈 사업에 진출하고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정치권에서 대기업 한식 뷔페 사업 진입과 확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동반성장위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적합업종 권고기한 내 예외조항 개선'을 위한 상생법을 비슷한 취지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동반성장위에서 대기업의 적합업종 합의 이행 상태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줄이는 것 등이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의 신규진출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전이라도 개선된 권고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신세계푸드 올반 여의도점.

계절밥상의 판교 아브뉴프랑점 내부 모습. /신세계푸드·CJ푸드빌 제공

열대야 맞이 '야식대전' 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열대야 맞이 야식대전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용품 쇼핑, 온라인·모바일로 '클릭'

리뉴얼·결제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모바일 경쟁력 강화

주방·생활용품 업계가 온라인과 모바일에 사활을 걸었다. 홈페이지 리뉴얼·결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사 몰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몰로 유입하기 위해 타 브랜드 제품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5일 락앤락에 따르면 락앤락 몰의 6월 매출이 리뉴얼 전인 4월 보다 10% 늘었다. 특히 같은 달 쿡방(요리 방송)프로그램 인기에 프라이팬 등 쿡 웨어 제품 매출이 전달보다 3배 이상 뛰었다.

락앤락은 자사 몰인 락앤락 몰을 통해 대표 제품 밀폐용기부터 조리용품·수납용품·유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락앤락은 2002년 첫 락앤락 몰을 연 이래 4차례 리뉴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리뉴얼을 통해 타 브랜드 입점몰 시스템을 구축, 자사가 갖고 있지 않은 카테고리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세제 헨켈·주방용품 브랜드 실리트·캠핑용품 버팔로 등과 같은 국내외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모바일 앱도 별도 구성, 모바일 몰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광글라스도 '시트램' '베카' 등 해외 브랜드의 국내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신제품이 나오는 데로 자사 몰 '유하스 몰'을 통해 첫 공개하고 있다. 최근 호응이 높은 냄비·프라이팬 등 쿡 웨어 라인업을 보강하고 홈쇼핑 판매 구성을 자사 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에도 잰걸음이다. 타파웨어는 지난 6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 후 7월까지 온라인 몰의 평균 매출액이 1~5월 대비 27% 증가했다.

업계는 모바일·온라인 쪽 판매 채널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에서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기 힘든 평일에 온라인 매출이 높다"며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어 그동안 자사 몰에 소극적이었던 생활용품 업계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이랜드, 액세서리 SPA '라템' 론칭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5일 SPA 액세서리 브랜드 라템을 론칭하고 패션 전 영역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템은 목걸이와 팔찌, 반지, 귀고리 등의 쥬얼리 부분에서부터 시계, 스몰백, 지갑, 파우치, 에코백, 남성잡화 등 패션 액세서리까지 4000여 가지의 상품을 모아놨다. 패션 콘셉트에 따라 잡화 아이템을 착용하는 '믹스매치족'이 주 고객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카스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공식 후원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의 카스는 7일부터 사흘간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16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행사 기간 블루 색상의 '카스존'을 설치한다.

카스존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원한 카스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맥주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정은미 기자

LG생건 '오휘 넘버원 에센스' 리뉴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오휘 셀파워 넘버원 에센스'를 5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피부 구성 성분을 함유한 쓰리 세컨즈 엔젤™(3 seconds angel™) 성분을 통해 세안 중에 생기는 피부 미세 틈을 보호해 세안으로 손실되는 피부 핵심성분을 빠르게 보충해준다.

새롭게 출시되는 '오휘 셀파워 넘버원 에센스(미스트 타입)'는 세안 뒤 3초 안에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 타입의 에센스다.

/김수정 기자

와인, 주류수입액 사상 첫 1위

상반기 9443만 달러로 양주 9173만 달러 제쳐

와인이 수입 술 '부동의 1위'였던 양주를 제쳤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와인 수입액은 9443만 달러로 위스키, 브랜디 등 양주 수입액 9173만 달러를 넘어섰다. 반기동안 와인이 양주보다 수입액이 많아진 것은 처음이다.

와인은 상반기 주류 수입액 3억7984만 달러 중 2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상반기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 와인 수입액은 6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한때 양주는 국내 전체 주류 수입액의 3분의 2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다. 이번 반기 양주의 비중은 24.1%로 떨어져 4분의 1정도가 됐다.

와인과 양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와인 수입액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연 1억 달러를 돌파해 1억5036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수입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1억8218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양주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스키는 2011~2013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1억9828만 달러로 7.0% 증가했다. 하지만 상반기 8983만 달러를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정은미 기자

잠들기 1시간 전 TV Off… 열대야에도 꿀잠

이대목동병원 숙면 비결 제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확대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처럼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잠을 자기에 적절한 온도는 18~20도로 알려져 있다. 폭염으로 밤에도 실내 기온이 25도를 웃돌게 되면 중추신경계 중 체온과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과각성 상태로 이어져 쉽사리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장 이향운 교수는 "우리 몸은 체온 변화로도 낮과 밤을 구분하는데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에는 뇌가 밤을 낮으로 착각해 수면 유도 호르몬 대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불면증을 겪기 쉽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불면증은 성인 3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장기화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물론, 소화기계,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불면증과 같은 수면문제가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돼 낮의 활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한 경우 반드시 수면 센터 등을 찾아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잠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

1. 술은 숙면의 묘약이다? 술보다 우유·둥글레차 효과

술과 녹차·커피는 숙면의 적으로 우유나 둥글레차가 숙면에 도움된다.

술을 먹으면 금방 잠이 들긴 하나,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자주 깨고, 깊은 잠 단계는 오히려 저하돼 결국 숙면 시간은 줄어든다.

또 녹차나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나 술은 피하고 잠이 안 올 땐 수면을 유도하는 '트리토판'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나 바나나, 상추, 호박 등을 섭취하거나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졸음을 유발하는 둥글레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2. 피곤해야 잠이 잘 온다? 지나친 운동 생체리듬 파괴

여름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린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늦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각성 상태를 증가시켜 숙면에 방해가 된다. 격한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자칫 생체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

밤에는 요가나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되도록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또 운동 후에는 반신욕이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체온을 낮춰 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3. TV·스마트폰 사용 도움? 스마트폰 사용 뇌 흥분 유발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청색광을 내뿜는 전자기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하고, 이러한 활동이 뇌의 흥분을 가져와 수면에 방해가 된다.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전에는 뇌를 자극할 수 있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4. 취침자세가 숙면 질 좌우? 똑바로 누워 코로 숨 쉬어야

올바른 수면자세는 똑바로 누워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지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자면 다소 호전되기도 한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구강건조증이 발생, 이물질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해 감기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 구취 등이 생길 수 있다.

5. 시원한 곳에서 자야 한다? 딱딱한 바닥 척추건강 위협

시원한 곳이라도 딱딱한 바닥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겨 척추가 S자 모양으로 올바르게 유지되지 못해 몸이 결리고 쑤시는 등의 요통이 생길 수 있다. 바닥은 매트 등으로 적당히 푹신하게 하고, 더울 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정도 약하게 틀어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 습도는 약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6. 장년층 불면은 자연스럽다? 증상 오래 지속 땐 질환 의심

일시적인 불면증인지 질환인지 확인해야 한다. 55세 이후가 되면 젊은 사람에 비해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의 수면 요구량도 줄어든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문제와 함께 정신적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수면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은애 교수… 제2도약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이동현 교수 교육연구부장 임수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5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은애(사진)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과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에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와 임수미 영상의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박 실장은 미숙아 만성폐질환 예측 프로그램 특허 취득, 극소저체중 출생아 지원사업인 '이화 도담도담센터'의 운영 등 국내 신생아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

진료부원장에 선임된 이 교수는 방광암과 인공방광 수술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힌다. 특히 국내에서 인공방광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의사로 매년 이 분야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교육연구부장을 맡게 된 임 교수는 국내 갑상선 고주파 치료 분야 전문가다. 뇌신경계, 두경부, 뇌혈관 중재적 영상의학 등과 관련한 각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건립과 그동안 추진해 온 제2의 도약을 위한 병원 혁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캠핑장 '야생진드기' 걱정 끝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더블' 기피효능 4시간 이상 지속

최근 작은소참진드기(일명 야생진드기)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야생 살인진드기 기피제인 '디펜스벅스 더블'(사진)을 출시했다.

'디펜스벅스 더블'은 을지대학교 위생해충방제연구소에서 진행된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기피효력시험' 결과, 3~4회 분사했을 경우 기피 효능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치명적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위험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늦가을인 11월까지 활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작은소참진드기 기피제로 공식 허가 받았다.

/최치선 기자

현지 참가 대학관계자들에게 상명대를 소개하고 있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 中·동남아 대학과 학술교류

中-ASEN 교육훈련교류전 ICT융합·예술디자인 협력

상명대학교는 3일부터 4일까지 중국 귀주성 귀양에서 열리는 '중국-ASEN 교육훈련교류전'에 특별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상명대는 참가자들에게 입시 설명과 학교 홍보와 함께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특화분야인 ICT융합과 예술디자인분야는 현지 참가 대학 관계자 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단을 대표한 상명대 김종희 대외협력부총장은 귀주광파 텔레비전방송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뷰에서 "상명대는 앞으로 ICT융합과 예술디자인 분야를 비롯하여 모든 학문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복현명 기자 hmbok@

star bag

아시아 투어 시작

배우 **소지섭**이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다. 소지섭은 지난달 25일 대만과 지난 2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팬과 만나는 '세컨드 아시아 투어-렛츠 고 투게더'에 돌입했다. 오는 28일과 30일에는 일본 고베와 도쿄에서 팬 미팅을 연다.

신곡 음원차트 점령

그룹 **빅뱅**의 8월 신곡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와 '쩔어'가 5일 발표와 동시에 국내 8개 음원차트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만,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동아시아 투어 나서

밴드 **쏜애플**이 한국을 대표해 일본 록 밴드 모노아이즈, 대만 펑크 밴드 파이어 엑스와 함께 한국·일본·대만 동아시아 3개국 서킷 투어에 나선다. 다음달 12일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첫 공연을 연다.

뮤지컬 '고래고래' 출연

록 그룹 트랙스(TRAX)의 멤버 **김정모**가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뮤지컬 '고래고래'에 캐스팅됐다. 형들과 함께 밴드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인 베이시스트 병태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연극 '프라이드' 연습 중

배우 **배수빈**이 오는 8월 무대에 오르는 연극 '프라이드'의 연습에 한창이다. 배수빈은 '프라이드'에서 필립 역을 맡았다. 그는 "2년 만의 무대 도전이라 설레는 한편 기분 좋은 긴장감도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은동아'로 연기 열정 찾았어요

미스코리아 출신 김사랑(37)은 외모 때문에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는 배우다. '시크릿 가든' '도쿄 여우비' 등 많은 드라마에서 도시적이고 섹시한 캐릭터를 주로 해왔다. 드라마 '왕과 나'와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에서는 관능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하지만 이미지 소비에 지쳐갔다. 연기 변신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지 캐스팅만이 줄을 이었다. 김사랑은 결국 "시크릿 가든"의 윤슬을 마지막으로 드라마에서 모습을 감췄다.

'사랑하는 은동아' **김사랑**

"배우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지쳤어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고요. 일부러 떠난 건 아니지만 어느 새 4년이 흘렀죠. 작품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열정도 의욕도 없고 열심히 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서 돈을 벌거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작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요. 배우라는 직업을 좋아한다고 해도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김사랑이 다시 드라마 복귀를 결심한 것은 온전히 캐릭터의 힘이었다.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이하 '은동아')에서 김사랑은 진가를 보여줬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멜로 드라마를 홀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연기로 증명했다. 드라마는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시청률도 높았다. 중국 소후닷컴에서 기대작 1위로 뽑힐 정도로 해외 반응도 좋았다.

"배우로서 (은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났어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치 배우를 계속하라는 계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주력했어요."

김사랑은 '은동아'로 연기에 대한 열정을 찾았다. 멜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

"다른 작품 때는 끝나고 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은동아'는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끝난 뒤에 오히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이래서 연기를 하는구나' 싶었죠. '은동아'가 제 '인생작'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앞으로 자주 시청자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멜로 드라마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질릴 때까지 해보고 싶어요(웃음)."

타협하지 않는 성격
의욕 없이 연기 못해
4년의 공백기 만들어

은퇴고민 중 만난 작품
멜로의 매력에 푹 빠져
질릴때까지 해보고 싶어

'은동아'에서 김사랑은 한 아이의 엄마를 연기했다. 그러나 아직 결혼보다는 연기를 더 하고 싶다.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이상하게 급한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도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시고요. 아직은 연기를 더 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쉬면 4년마다 나오는 '월드컵 배우'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웃음). 물론 일도 사랑도 기회가 오면 잡을 거예요."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김사랑의 미모는 어디서든 드러난다. '은동아'에서 30대 초반 역할을 연기했지만 어색함이 없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몸에 나쁜 걸 일체 하지 않아요. 술도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24시간 열려있어서 머리가 복잡할 때면 교회를 찾아가요. 얼굴에 살이 많은 타입이라 어려보이는 게 아닐까요?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동안이란 말을 들었어요(웃음)."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서부전선' 내달 추석시즌 개봉

설경구·여진구 주연
'해적' 제작진 참여

설경구, 여진구 주연의 영화 '서부전선'이 오는 9월 추석 시즌 개봉을 확정했다.

'서부전선'은 농사 짓다 입대한 국군과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이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설경구는 비밀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국군 쫄병 남복 역을 맡았다. 여진구는 우연히 비밀문서를 손에 쥐게 된 북한군 탱크병 영광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개봉 확정과 함께 티저 예고편과 티저 포스터도 공개했다. 티저 예고편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비밀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남복과 탱크를 반드시 사수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영광의 대결을 담아 호기심을 자극한다. 티저 포스터는 주연배우 설경구, 여진구의 긴장감 넘치는 눈빛 대결을 내세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서부전선'의 연출은 지난해 여름 868만 관객을 모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각본가 천성일 감독이 맡았다. 영화 '7급 공무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소수의견'과 드라마 '추노' 등을 만든 제작사 하리마오 픽쳐스의 작품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오늘밤 9시 40분

O'live

전남 vs 서울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종횡무진 감초 배우 스크린 활약 눈길

오달수·배성우·오대환 2편 이상 동시 개봉

개성 만점·반전 매력 여름 극장가 누벼

'베테랑' 오달수

'뷰티 인사이드' 배성우

올 여름 극장가에 대작 영화 속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는 배우들이 있다. 충무로 대표 감초 배우인 오달수, 그리고 새로운 신스틸러로 떠오르고 있는 배성우, 오대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2편 이상의 영화에서 활약하며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달수는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 등 흥행작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최초 1억 관객 동원 배우'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얻었다. 올 여름에는 한국영화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암살'과 '베테랑'에 동시에 출연해 바쁘게 스크린을 누비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에서 오달수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의 파트너 영감 역으로 출연했다. 특유의 코믹 연기는 물론 멋진 총격 액션까지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5일 개봉한 '베테랑'에서는 광역수사대를 이끄는 오팀장 역을 맡았다. 인간미 넘치는 모습과 함께 '무근육 액션'으로 색다른 웃음을 선사했다.

차세대 신스틸러로 떠오르고 있는 배성우는 올 여름 개봉하는 출연 영화만 무려 3편에 달한다. 먼저 '베테랑'에서는 영화 초반 중고차 범죄를 저지르는 중고차매장업주 역으로 등장한다.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황정민)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웃겼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 우진의 한 모습으로 출연한다. 우진이 18세에 처음으로 모습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캐릭터다. 짧지만 강한 존재감을 스크린에 새겼다. 27일 개봉하는 '오피스'에서는 웃음기를 지운 반전 연기를 보여준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의문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김병국 과장 역을 맡았다. 스릴러 특유의 긴장감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베테랑'과 '오피스'에 동시에 출연한 오대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오대환은 '베테랑'에서 근육질 몸매의 육체파 왕형사 역으로 김시후, 장윤주와 호흡을 맞췄다. 저돌적인 캐릭터로 영화에 크고 작은 웃음을 더했다. '오피스'에서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정재일 대리를 연기했다.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현실형 캐릭터다. 관객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문어 경매 도전한 남서방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후포리 남서방이 문어 경매에 도전한다. 평소 경매를 통해 농수산물을 낙찰 받는 중매인이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남서방이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춘자 여사와 죽변항 수산시장을 찾는다. 자격 미달로 중매 대리인으로서 대문어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첫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싸움에서 이겨 연달아 문어 낙찰에 성공한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까지 받지만 장모인 이춘자 여사는 못마땅한 마음을 드러낸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김범수는 안문숙을 위한 만능 남편으로 거듭난다. 집안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안문숙의 손톱에 세심한 네일아트를 해주고 얼굴에는 팩까지 해주는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여자 사람 친구' 특집. 연예계의 숨겨진 절친인 김원준-이아현, 유상무-장도연, 강남-이현이가 출연해 썸과 우정을 넘나들며 거침없는 폭로전을 펼친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오후 9시40분

대망의 결승전이다. 전남팀과 서울팀은 생선을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친다. 우승을 코앞에 둔 두 팀은 살아있는 생선을 손질하는데 갖은 애를 먹는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86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3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3회)	30 생생정보 (4회) 55 시간을 달리는 TV (5회)	55 딱 너 같은 딸 (59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문화유산 코리아 (재)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8회)	00 밤을 걷는 선비 (10회)	00 용팔이 (2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죠스>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드로니안, 스스로 날다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24시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47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5회) (재)		50 오늘 뭐 먹지? (57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롯데 (SPOTV+) 한화 vs SK (MBC SPORTS+) 삼성 vs KT (SKY SPORTS) KIA vs 넥센 (SBS SPORTS) NC vs LG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30 오늘 뭐 먹지? (85·86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5회)	10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20시	50 JTBC 뉴스룸	40 젠틀맨리그 (2회)	30 주문을 걸어 (4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2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4회)	40 한식대첩 3 (12회)	30 한식대첩 3 (12회)	00 사악한 동물들 1부	10 주말 N 영화 (525회)	
22시				00 사악한 동물들 2부	20 미션 임파서블 3	
23시	00 썰전 (127회)	00 가이드 (3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12회) 20 오늘 뭐 먹지? (86회)	00 프로그맨 6부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103회)	20 집밥 백선생 (12회) (재)	00 한식대첩 3 (12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5회)	40 소녀	

윤덕여호, 8일 북한과 동아시안컵 결승전

10년 만의 우승 기대
골득실, 북한 1골 앞서
한국이 이겨야 우승컵

여자축구대표팀. /연합뉴스

여자축구대표팀이 북한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남은 것은 두 가지 뿐이다. 이기면 우승이고 지면 준우승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인 셈이다.

여자축구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오후 6시10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북한 여자 대표팀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 3차전에서 맞붙는다.

앞서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1일 1차전 홈팀인 중국에게 1-0으로 이겼다. 4일 열린 일본과의 2차전에서는 2-1 역전승을 거뒀다. 중국과 일본에게 각각 3승 5무 23패, 3승 8무 14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거둔 결과라 고무적이다. 이로써 2005년 1회 대회 우승 이후 10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북한도 1일 1차전에서 일본을 4-2로 꺾었고 4일 중국과의 2차전에서 공방전 끝에 3-2로 승리했다. 북한 역시 한국에 승리를 거두면 2013년 4회 대회 우승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기록하게 된다. 골득실이 +3으로 한국(+2)에 1골 앞선 상황이다. 무승부만 해도 우승컵을 들게 돼 유리하다.

한국이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북한이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한국은 역대 북한과의 맞대결에서 고전했다. 15번 맞붙어 한 차례씩 이기고 비겼을 뿐이다. 나머지 13경기는 모두 패했다. 2006년부터는 8연패 중이다.

그러나 유일한 승리는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 2005년 동아시안컵이 그 무대다. 한국은 박은정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둬 그해 동아시안컵 타이틀을 가져왔다. 이번 대회는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무대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에 우승컵을 내준다고 해도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태극 낭자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윤덕여 감독은 이번 대회를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3차 예선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기회를 얻은 젊은 선수들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민아(24·현대제철), 이소담(21·스포츠토토), 강유미(24·화천KSPO) 등은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았다. 전가을(27·현대제철), 조소현(27·현대제철), 권하늘(27·상무), 김정미(31·현대제철)등의 물오른 기량과 신구의 조화도 만족스럽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자진사퇴

수사 장기화조짐 보여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사진) KGC인삼공사 감독이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키로 했다.

KGC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감독이 4일 구단에 감독직 사퇴 의견을 전해왔다. 그간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전 감독의 복귀를 기다려왔으나 등록마감 기한인 14일 전까지 사태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수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전 감독은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연맹을 비롯한 농구계 전체, 그리고 팬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검찰에서의 소명에 집중해 조속한 사태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14~2015시즌 KT 감독을 맡은 전 감독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5개 경기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2배 가까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GC는 김승기 수석코치를 감독대행으로 등록해 이번 달 프로아마 최강전과 2015-2016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하희철 기자

한국 남자배구, 7년 만에 이란 격파

아시아선수권대회

오늘 일본과 8강전

문용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 이란을 꺾었다.

한국은 5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8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개최국 이란에 세트 스코어 3-1(17-25, 28-26, 25-20, 25-23)로 역전승했다. 이란에 승리한 것은 7년 만이다.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 /아시아배구연맹 제공

한국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2008년 태국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배구연맹(AVC)컵에서 이란에 1승1패를 기록한 이후 7연패를 당했다. 이날 '국보급 센터' 신영석도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4일 대만전 이후 양쪽 무릎 부상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란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극복해야 했다.

한국은 1세트 초반 이란과 대등한 승부를 펼쳤다. 안정된 서브 리시브와 세터 권영민의 노련한 토스워크로 문성민과 곽승석, 최홍석이 편한 공격을 펼쳤다. 하지만 6-6 이후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세트를 내줬다.

하지만 한국은 2세트에 이민규로 세터를 교체했다. 송희채의 강서브와 최홍석의 공격이 살아난 한국은 듀스에 돌입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세트를 따냈다. 3세트에는 최민호의 속공과 송희채의 블로킹, 지태환의 연속 속공, 최홍석의 서브 에이스로 세트를 가져갔다.

4세트 20-21로 뒤진 상황에서 곽승석의 공격 성공과 상대 범실, 최민호의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란의 날카로운 반격에 23-23 동점을 허용했지만 상대 실책으로 간신히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다. 이어진 이란의 범실로 한국은 7년 만의 승리를 맛봤다.

한국은 조별예선(2차전)과 8강 플레이오프(2승) 성적을 더해 E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오늘 같은 장소에서 F조 4위인 일본과 8강전을 치른다. /하희철 기자

메이웨더, 내달 13일 은퇴 경기

마지막 상대는 베르토
파퀴아오와 재대결 무산

복싱 사상 최다인 49전 무패 기록에 도전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미국·사진)가 다음달 13일 은퇴 경기를 갖는다. 마지막 상대는 안드레 베르토(미국)다.

메이웨더의 프로모션 측은 5일(한국시간) 메이웨더가 내달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베르토와 맞붙는다고 밝혔다.

메이웨더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복싱의 '전설' 록키 마르시아노가 세운 사상 최다 49전 49승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된다. 케이블 방송사 쇼타임과의 계약은 한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경기를 치른 뒤 은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세계복싱협회(WBA) 웰터급 잠정 챔피언인 베르토의 통산 전적은 33전 30승(23KO) 3패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강자와 맞붙은 적이 없다. 복싱 전문지 '더링'이 매기는 랭킹에서 현재 웰터급 10위 안에 드는 선수와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또 3패가 최근 4년 사이에 몰려 있어 기량도 하락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웨더는 지난 5월 매니 파키아오(필리핀)와의 '세기의 대결'에서 졸전을 펼쳐 세계 복싱팬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번에는 '기록'을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상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희철 기자

"KT's hierarchy fan is reminiscent of the Joseon Dynasty"

KT 조선시대 연상케 한 '계급 부채' 논란

As part of a highly controversial internal program to promote and streamline employee interactions, KT has recreated hierarchical, society-themed fans which hearken back to the Joseon Dynasty.

These fans serve to distinguish KT's executive officers as part of a "noble class," which in turn rules over the company's other "subjects", the lower-spectrum employees.

Such a program is considered retrogressive, especially in light of the new wave egalitarianism being championed by industrialized nations all over the world.

KT(회장 황창규)가 직원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부채.

The deeply discriminatory, and potentially divisive nature of such a program is evident by the fact that executive officers' fans boast copy reading "Executive," and "Empowerment Number One," embossed on their sides. As such, this issue has been formally denounc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as several other civic groups.

In light of KT's deci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issued a warning to the company about the potential lasting divisive repercussions of intentionally entrenching such a deeply hierarchical system in the day-to-day workings of the company.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KT가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사원을 '일당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부채를 전국 KT 직원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역행하는 '양반과 천민' 같은 계급 사회를 조장하는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부채의 그림을 면면이 살펴보면 임원용 부채는 임원을 임금으로 표현하고 '임파워먼트 넘버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부채에 임금복장을 한 그림의 얼굴 부위에 임원이라고 큰 글자로 인쇄해 계급을 구분짓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굴지의 대기업인 KT가 계급 사회를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2		6						9
	3					6	5	
				6			8	7
	7	1	8	5		3		
		9		7	6	5	4	
8	1			9				
	2	4					9	
9						7		6

	8	2			7			5
					6	2		3
6			9	2			4	
	2		5					7
				9				
9					1		8	
	7			4	3			9
8		4	6					
3			7			5	2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2	4	6	5	8	7	1	3	9
7	3	8	9	1	2	6	5	4
1	9	5	3	6	4	2	8	7
4	7	1	8	5	9	3	6	2
5	6	2	1	4	3	9	7	8
3	8	9	2	7	6	5	4	1
8	1	7	6	9	5	4	2	3
6	2	4	7	3	1	8	9	5
9	5	3	4	2	8	7	1	6

1	8	2	4	3	7	6	9	5
5	4	9	8	1	6	2	7	3
6	3	7	9	2	5	1	4	8
4	2	3	5	6	8	9	1	7
7	1	8	2	9	4	3	5	6
9	5	6	3	7	1	4	8	2
2	7	5	1	4	3	8	6	9
8	9	4	6	5	2	7	3	1
3	6	1	7	8	9	5	2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유아원 인수하려는 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창업에 별 진전 없으나 직장운은 매사에 순탄

명품1 여자 67년 8월 15일 양력 4시경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메트로의 '사주 속으로'를 이용해 봅니다.

저는 올해 49세 여성으로 이제까지 유아원에서 보모로 지내오던 중 원장이 경제적인 사정과 학부형과의 마찰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절더러 유아원을 인수받아 하라고 하는데 돈이 수억 들어가 요즘처럼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유아원의 물을 흐려놓아 운영상 규제가 많은데 제가 하면 잘 될 운이 되는지요.

그리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백년해로가 될 수 있는가요. 어찌해야 합니까.

A 인수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2015년 문서 운이 오니 남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겠으나 음력 7월 지나 중도 하차되는 괘가 나오니 창업에 별진전은 없게 됩니다.

귀하는 도세주옥(陶洗珠玉:귀중한 구슬을 가려내어 씻음)이니 지닌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욱이 총명하여 직장운은 매사가 순조롭습니다.

피부가 희고 고우며 전체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문예방면에 조예가 깊은데 포태법상으로 정재(正財:정식으로 들어오는 돈)운이 상승하고 있으며 귀하의 수호신이 목생화(木生火)하여 나무가 타면서 불길을 일으키듯 발복합니다.

월지(생월)의 지장간(숨어 있는 것)이 육친 중 겁재에 해당하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으며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칩니다만 자존심이 강하고 보기 드물게 사주구조가 잘 생겼습니다.

사주구조가 좋다고 보는 것은 오행(목·화·토·금·수)이 골고루 들어 있으면서 상호 상생(相生)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고서에 의하면 역학 용어로 주류무체(周流無滯: 막히지 않고 통하다)라고 하여 물의 흐름이 막힘이 없어 잘 흐르는 것으로서 그 외에도 생생불식(生生不息: 서로 쉬지 않고 생하다), 연주상생(連珠相生:구슬을 꿰듯이 서로 생하다) 등의 말들이 있으나 모두가 오행이 상생관계를 말하고 있는 면에서는 의미가 같은 말들입니다.

다만 배우자 궁에 상관(傷官:남자를 상하게 함)이 있어 혼자 똑똑하여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에 탐음(貪淫)하니 몰래 바람을 피우기 쉬우며 부부사이가 냉랭하므로 어찌할 방법은 찾기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점은 개선할 방도가 별반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6일 (음 6월 2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입니다. **60년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84년생**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4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61년생** 입조심하세요. **73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85년생** 정주지 마세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50년생 곧 나아지니 휴식하세요. **62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74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86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1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7년생** 명예를 드 높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52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쫓으니 그 결과가 가히 창대 할것입니다. **88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수 있습니다.

53년생 안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65년생** 노력한 만큼 얻을것입니다. **77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89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78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날수 있습니다. **91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자본이 감소합니다. **68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80년생** 능력있는 윗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57년생 땀을 흘리면 매우 좋습니다. **69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8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3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봄바람이 붑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71년생** 소원을 풀 수 있겠습니다. **83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95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성교육이 아닌 성폭력 가르치는 이상한 학교

최치선의 세상만사

최근 한 공립고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나라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130명 이상의 여학생과 여교사들이 1년 넘게 교장을 포함한 50대 남선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해외토픽에나 올라갈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공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해당교사 5명은 경찰에 고발조치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피해에 대해 조사 중인데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할래?'라는 말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은 피해 여교사들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묵살했다. 오히려 다른 가해교사들과 함께 성추행에 가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나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마다 전국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교사 성범죄 대책이 전무함을 보여준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솜방망이 수준인 교사들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권위주의에 입각한 군사부일체의 잔재,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 비민주적인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스승에 대한 배신감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실에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동료여교사와 여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학교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평균보다 7배나 많은 학생이 징계성 퇴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번에 터진 대규모 성폭력 사건은 '뒤처진 학력을 따라잡는다는 미명 아래 일부 간부 교사들이 주도한 구조적 폭력의 일부'라는 게 피해 교사들과 교육계의 설명이다.

교장 등 가해 교사들이 중심이 돼 선도나 상담보단 징계와 처벌 위주로 학교를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 또 벌점과 징계, 퇴학과 강제전학이 일상화됐고 비교육적 분위기에 억눌린 학생들과 힘없는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가해교사들이 젊은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저지른 비인격적인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지않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함부로 대해 온 사실도 피해학생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장기간 성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재임용하거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때문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0명이다. 하지만 교단에 남아있는 가해교사는 53%인 121명이나 된다. 절반이상의 성범죄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을 믿고 어떻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지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피해교사들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됐고 피해교사들도 교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들은 학교나 학원 등 교직 계통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법이 제도화 돼야 하겠다.

社說

재벌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정부 여당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뒤늦게 움직일 모양이다. 지금까지 재벌이 하는 일을 비호만 해오다가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국민의 지탄이 커짐에 따라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들은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옥죄어 왔다. 또 총수 일가가 주로 비상장사를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통째로 2세와 3세에게 물려주곤 했다.

롯데 총수 일가의 이번 경영권분쟁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동주 신동빈 형제로서는 사실상 공짜로 거대재벌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에 불과하고 그의 자녀를 포함해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배하는 롯데의 자산총액은 무려 93조원을 넘는다. 롯데를 비롯한 이들 재벌이 이렇듯 소수지분으로 그 큰 재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그물 때문이다. 롯데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가 한국과 일본에 걸쳐 400여개에 이른다. 또 다른 재벌에 비해 유난히 더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런 순환출자 그물은 개발연대에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돼 온갖 부작용을 낳았다. 그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고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되자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지논의가 일기도 했다. 그렇지만 성장지상론자들의 입김 때문에 끝내 유보되고 신규출자만 막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때문에 악명높은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번처럼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의 이전투구가 빚어진 셈이다. 롯데의 이번 분쟁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특히 재벌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빚 내서 주식 사는 개미, 괜찮을까?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부 기자>

올해 들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난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재연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8조286억원이다. 연초 5조500억원에서 58% 가량 늘어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액이 코스피 보다 2500억원 가량 많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올 들어 상승 랠리를 이어온 증시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신용잔고 증가가 증시 하락 국면에 진입했을때 추가 하락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6월 이후 보름만에 3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한 중국증시의 경우 신용잔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8.8%에 달했다. 과열된 투자심리에 따른 신용잔액 증가는 중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증시에서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상황만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다 '빚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빚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개인파산신청, 무료 법률지원 받으려면?

생활 법률

퇴직 후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다. 인근 프랜차이즈 치킨집 개점으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 독촉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새벽 장을 보던 아내마저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도 병원비로 새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치킨집 폐점으로 손에 쥐었던 얼마간의 돈도 바닥이 났다. 치킨집 대박을 믿고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에 기약 없는 아내의 병원비까지 A씨는 개인파산을 생각 중이다. 법률 상담 비용도 벅찬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은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A씨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 입증 자료 등을 마련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준다.

법원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준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구조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송 구조 담당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 파산·회생과 관련 재판부터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만 모든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패소가 분명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박대순 △자동차운영과장 정의경

■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마케팅팀장 곽정은 △동반성장팀장 이현주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 언론중재위원회
△총무팀장 최영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급 승진 △감사실 최남용 △검사기획부 최병섭 △기술자격본부 김용섭 △충청본부 박영성 ◇2급 승진 △경영지원부 김호영 △콘텐츠산업진흥부 김상재 △기금운용부 백남일 △전파관리부 정점모 △자격기획부 김승현 △서울본부 문광민 △부산본부 이승철 △3급 승진 △경영지원부 박동수 △대외협력부 유승국 △전파자원개발부 이봉규 △서울본부 윤기원 △부산본부 김권섭 △부산본부 박흥구 △경북본부 황성호

■ 아리랑국제방송
△기획팀장 송창운 △시청자만족팀장 김혜영 △글로벌네트워크팀장 정재신 △미디어사업팀장 김영종

■ 포커스뉴스
△편집국 국차장 신윤석 △사진영상국장 김연수 △미디어전략실장 최석영 △시스템개발실장 안현순 △광고국장 하재화 <부국장>△산업부 류원근 <부장>△경제부 김형기 △사회부 이건우 △문화스포츠부 정병철 △국제부 고현석 △정치부 이승재 △사진부 서영걸 △영상부 최한규 △미디어랩정지연 이성훈 △디지털뉴스부 김동호

■ 소년한국일보
△NIE지원본부 본부장 최동기

■ 아시아투데이
△독자마케팅국 부국장 정수열

두툼한 엉치살, 이게 바로!

REAL CHICKEN BURGER

리치버거

₩3,400 / Set ₩5,400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